

김민재, '올해의 선수' ... "아시안컵 우승 영광 되찾을 것"

'괴물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생애 처음으로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김민재는 2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축구협회(KFA) 어워즈'에서 남자선수 부문 '올해의 선수' 영광을 안았다.

시상대에 오른 김민재는 "좋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많은 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셨다. 소속팀이나, 대표팀에서나 많은 응원 주셔서 감사하다. 2023 아시안컵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2024년 파리 올림픽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재는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손흥민(32·토트넘)에게 밀려 2위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서는 총 137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

김민재는 2023년 한 해 동안 세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에서 22위를 기록했다. 이는



▲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후 취재진과 인터뷰 하는 김민재. 사진=대한축구협회

전 세계 수비수 중 가장 높은 순위였다. 아시아 수비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들어간 건 김민재가 최초였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축구연맹(AFC)이 선정하는 '올해의 국제선수상'도 차지했다.

시상식 이후 김민재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룬 1년이었다. 앞으로 축구를 하면서 이보다 더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발전하겠다. 최고의 시즌이었다."고 전했다.

아시안컵 무대에 나서는 김민재는 "목표는 우승"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공격수들의 화력이 좋아 매 경기 득점한다. 수비쪽에서 집중해야 할 것 같다. 그 부분을 잘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승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둔 대한민국 여자 축구팀 공격수 케이시 유진 페어(17·무소속)는 남녀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2023년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케이시는 한국말로 깜짝 소감을 전했다. 그간 통역을 통해서 인터뷰 했으나 이날만큼은 한국어로 푹박또박 말했다. 케이시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서 감사하다. 한국 대표팀으로 뽑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기회를 준 대한축구협회에도 감사하다. 2024년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LIV 이적' 온 램·'LPGA 접수' 릴리아 부, GWAA 선정 '올해의 선수'

온 램(스페인)과 릴리아 부(미국)가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남녀 선수로 뽑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골프기자협회(GWAA)는 전날 '람과 부가 PGA투어, LPGA투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람은 지난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비롯해 더 센트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네시스 인비테셔널 등 4승을 거뒀고 라이더컵에서 유럽팀의 우승을 이끄는 등 PGA투어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얼마 전 거액을 받고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후원을 받는 리브 골프로 이적하면서 많은 이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골퍼 기자들은 PGA투어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로 램을 선정했다.

람은 48.9%의 득표율로 빅터 호블란(노르웨이·



▲ 온 램(왼쪽)과 릴리아 부. 사진=AFP/연합뉴스

33%), 스코티 셰플러(미국·18%) 등을 제쳤다.

람은 성명을 통해 "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1년 내 출전한 모든 대회와 샷을 주의 깊게 봐준 기자들에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밝혔다.

LPGA투어에선 부가 올해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부는 72.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시즌 전까지 LPGA투어에서 우승이 없는 '무명'에 가까웠던 부는 2023년 놀라운 반전을 일궜다. 그는 세브론 챔피언십과 AIG 위민스 오픈 등 메이저 2승을 포함해 4승을 쓸어담으며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에 등극했으며 상금왕과 LPGA투어 올해의 선수를 휩쓸었다.

챔피언스투어 부문에선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79.9%의 높은 득표율로 수상했다. 스트리커는 지난해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투어 메이저대회에서만 3승을 거두는 등 6차례의 우승을 쓸어담았다.

한편 GWAA는 미국 골프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모임이다. 1946년에 창설됐고, 1975년부터 회원 투표로 올해의 선수를 뽑는다. 시상식은 4월 마스터스 개막 전날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SMTACUPUNCTURE

• SPORTS MOTION THERAPY •

• 스포츠 손상 • 관절 질환 • 현대인의 목 • 어깨 통증 • 자세변형

(한방치료 / 물리치료 / 최신 장비 사용)

한방병원

☆ 침, 부항, 한약

☆ 추나요법(자세교정)

☆ 운동요법

김창배 L.Ac
전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경력

- Acupuncture L.Ac
- 한국 물리치료 경력 20년 이상
- 한국 스포츠 물리치료 정회원
- 한국 야구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진료과목

- 교통사고 후유증
- 테니스, 골프 엘보우
- 손목 터널 통증 / 족부 통증
- 퇴행성 관절질환
- 오십견 / 안면신경 마비

〈각종 보험〉
서울 메디칼 그룹
HSA / FSA
비보험 환영

T. 714.519.3022

100 N State College Blvd Suite E, Fullerton, CA 92831 | www.SMTAcupuncture.com

